

21세기 문명위기와 세계체제론: 이매뉴얼 월러스틴(I. Wallerstein)의 비교역사적 전망*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장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

최근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의 연이은 출현으로 인해 이른바 ‘인류세(Anthropocene)’의 파국이 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하에 놓여 있다. 또한 세계화의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폭주하면서, 특권을 지닌 소수의 승자와 고용이 불안정한 다수의 패자 사이의 격차는 벌어져 왔다. 이처럼 작금의 문명적인 위기 상황에서 본고는 대표적인 세계체제론자인 월러스틴의 시각과 통찰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월러스틴의 학문체계를 보면, 그는 사회과학이 내부적으로 분과학문화되는 과정을 살펴 보면서 역사학과 기타 사회과학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이 두 가지 학문을 ‘역사적 사회과학’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 사회 연구의 가장 적합한 분석단위가 ‘개별 국가와 사회’가 아니라 전체(the whole)로서의 ‘세계체제’가 되어야 함을 주창하였다. 또한 그는 종속이론의 영향을 받아 세계체제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16세기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자본주의 세계경제 즉 근대 세계체제에 연구를 집중하였는데, 이는 중심부와 주변부, 반주변부를 구분하는 기축적 분업, 국가간체제로 특징지어지는 복수의 지리적 정치중심과 다양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적인 주기적 변동 속에서 체제의 조정과 헤게모니의 변동을 경험해 온 역사적 체제로 파악된다. 프랑스혁명 이후 양대 반체제운동으로서 노동-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진보의 필연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며, 전통적 반체제운동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는 동시에 그것의 약점을 넘어서려는 ‘68혁명’을 잇는 새로운 반체제운동 속에서 불확실성을 넘어서 대안적 세계체제를 추구하는 주체들의 선택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의 논의는 편향과 일부 오류도 있었지만,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한 문명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체제적 전망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월러스틴의 논의들은 현재 다시 살펴볼 필요가 충분하다.

주제어 인류세, 문명적 위기, 월러스틴, 세계체제론, 역사적 사회과학, 반체제운동

I. 머리말

최근 인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즉 코비드19(Covid-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건강과 안전에 전례 드문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이처럼 위협적인 감염병의 신속한 지구적 확산을 낳은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은 기후변화에 따른 동식물

* 이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수행에는 2020년도 광주과학기술원 GRI(GIST연구원)의 지원이 있었다.

서식지 파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씩 증가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와 습도의 상승이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동물과 인간의 거주지 경계를 허물어 열대우림에 서식하던 세균이 인간에게 옮겨진다. 최근 20년간 30종이 넘는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한 것이 그 증거다. 2002년 이후 사스(SARS), 아프리카돼지열병, 에볼라(Ebola), 메르스(MER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거의 3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의 연이은 출현으로 인해 지구가 50년 안에 종말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동·식물의 10%가 멸종의 위협 아래 놓여 있다.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물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일으켜 온 이른바 ‘인류세(Anthropocene)’의 파국이 멀지 않을 수 있다.¹ 이는 자연에 대한 지나친 개발이 파괴로 이어진 결과다. 화석에너지의 대량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급증이 생태계에 끼친 충격으로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시대가지고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명위기에 대해 냉정한 성찰과 전망이 필요한 중대한 시점이다.

오늘의 기후변화와 연관된 코비드19로 인한 문명위기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어떻게 보았을까? 자유주의자가 자본주의의 수정을 통해 기후변화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문명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마르크스주의자는 자본주의를 극복해야만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2019년 8월에 작고한 역사사회학자이자 대표적인 세계체제론자인 월러스틴은 인류가 자본주의 세계경제 안에서 살아가는 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도 문명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진단했을 것이다. 그는 과거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따라잡기 위하여 평등보다 성장이라는 목표와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경제 안에서 이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할

¹ ‘인류세(Anthropocene)’란 노벨화학상 수상자 크뤼첸(Paul Crutzen)과 생태학자 스토머(Eugene Stoermer)가 2000년에 발표한 한 기고문에 등장한 신조어로 “인간 활동이 지질학적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시대(epoch)”를 지칭한다. 이후 이 용어는 학문적 개념으로 보다 정교화되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인류가 처한 생태학적 위기/파국 상황에 대해 성찰을 이끄는 화두로 현재보다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다(김홍중, 2019: 4-5).

뿐만 새로운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그는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해와 독재와 같은 환경파괴와 권력독점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국가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진단한 바 있다.² 그는 사상적으로 마르크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지만 교조적으로 과거에 매몰되기보다 역사적 상상력을 가지고 독자적인 시대진단을 제기하였으며 미래 사회주의 세계질서의 출현을 기대하기도 하였다.³

현실 사회주의의 해체 이후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전일화를 통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질주하면서, 국가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국가들 안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불신, 균열, 대립, 갈등, 해체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화는 만병의 치료약이라기보다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종분규, 재정파탄, 기후변화, 난민발생, 환경파괴, 질병확산, 국경분쟁, 장벽쌓기 등 인류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있다.⁴

일찍이 세계화를 ‘바닥을 향한 질주(race to the bottom)’로 본 경제학자 크루그먼(Krugman, 1997)은, 모든 나라들이 자유화와 탈규제 아래 더 싼 임금과 더 낮은 세금을 추구하는 가운데 복지국가를 향한 에너지는 소진되고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은 엉망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인도주의적 구호단체 옥스팜(OXFAM)에 의하면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6명이 소유한 자산은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 38억 명의 자산 규모에 맞먹는다(옥스팜, 2019: 30). 지난 40년 동안 세계 하위 50%의 소득이 94% 증가하였다

² 심지어 월러스틴을 비롯하여 체이스턴 등 세계체제론자들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을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중심부를 발전주의적으로 ‘추격’하는 반(半)주변부와 비슷하게 보았으며, 그 국가들의 기능에 있어서도 자본주의 반주변부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안정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기조차 하였다(이수훈, 1993: 244; 백승욱, 2006: 30).

³ 이러한 그의 지향에 의거하여 월러스틴은 세계체제론적 작업이 본격화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로 보았고 ‘세계 사회주의 정부’를 언급하며 기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이 개념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자본주의 세계체제 이후에 대한 그의 전망은 보다 덜 확정적이 되고 주체들의 실천적 선택과 체제의 구조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과학자 프리고진(Ilya Romanovich Prigogine)과의 교류와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동구권 및 소련의 현실 사회주의 붕괴도 이러한 인식 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의 교과서적인 후기 저작(월러스틴, 2005: 253)의 옮긴이 후기 참조.

⁴ 세계화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임현진(2011) 참조.

면, 상위 0.1%의 소득은 133%나 늘어났다. 특권을 지닌 소수의 승자(the privileged)와 고용이 불안정한 다수의 패자(the precariat) 사이의 격차는 넓어져 왔다.⁵

세계화의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대안체제 없이 질주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눈사람 모양의 80 대 20이란 숫자가 상징하듯 ‘두 개의 국민’이 나타나고 있다. 이 와중에서 민족, 인종, 젠더, 세대, 계층, 집단 등의 사이에서 균열이 복합화되면서 자국 중심주의 아래 포퓰리즘이 나타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북미와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남미와 아시아로도 파급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극단적 좌나 우 포퓰리즘 정당이 전통적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 정당보다 지지층과 의석수 확보에서 약진해 왔다.⁶

2020년 현재의 코비드19 팬데믹은 세계대전과 같은 전시(戰時)가 아닌 시기에 전 세계가 당면한 전대미문의 재난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발전 패러다임에 일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지닌 본질적 한계에 대해 돌아보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체제와 문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⁷ 과거는 찾아갈 수 있지만 만들 수 없고, 미래는 찾아갈 수 없지만 만들 수 있다. 역사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와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 미래로의 호출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한 세기를 내다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원시적(遠視的)이고 총합적(總合的)인 시야를 가져야 한다.

⁵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저임금과 저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 무산계급으로서, 이탈리아어로 ‘불안정한’이라는 의미의 ‘프리카리오’와 무산계급을 가리키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이다. 이에 대한 포괄적 연구로는 스탠딩(2014)의 논의 참조.

⁶ 가령 2019년 5월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유럽의 정치지형이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 지난 수십 년간 유럽 정치의 중심세력이었던 중도우파와 중도좌파가 크게 세력을 잃고,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과 녹색당이 대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수, 2019).

⁷ 윌러스틴은 자본주의 문명과 이전 문명의 세계종교들과의 차이를 ‘세계의 물질적 참상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즉 이전의 세계종교들은 전쟁, 내전, 기근, 역병 혹은 재난에 의한 죽음과 같은 대표적인 네 가지(그는 이를 “묵시록의 네 기사”에 비유하기도 한다)의 세계의 물질적 참상에 대해 대담과 위안을 주려 했으나 정치적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던 반면, 자본주의 문명은 ‘지상의 역사 속에서’ 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기대하게 하였다. 이는 부와 성장에 대한 진보적 관념, 낙수효과 이론, 혹은 자본주의의 세속적 낙관론과도 연결된다(윌러스틴, 1993: 122). 하지만 현재는 이 문명적 기대와 약속이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례 없는 세계적 재난을 맞이한 국면이다.

팬데믹을 초래한 생태적 위기를 포함하는 작금의 시대적이고 문명적인 위기 상황에서 본고는 특별히 월러스틴의 시각과 통찰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재의 위기가 그 원인과 여파에 있어서 세계적이며 구조적이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지속’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의 세계체제론적 연구와 전망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원시적이고 총합적인 시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의 학문적 지평에서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사회과학에서 거시적 전망을 포괄하는 비교역사 연구적 패러다임의 구축과 이에 기반한 연구들은 과거에 비해 많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20세기 중엽 이래 비교역사 연구 분야에서는 그 이전의 고전 사상가와 이론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토크빌(Tocquevill), 마르크스(Marx), 뒤르켐(Durkeim), 베버(Weber) 등의 문제틀과 방법론을 이어받아, 거시적 체제변화와 문명전환을 연구한 걸출한 사회이론가나 역사가들이 많이 등장했다. 아이젠슈타트(S. N. Eisenstadt), 벤딕스(R. Bendix), 앤더슨(P. Anderson), 톰슨(E. P. Thomson), 무어(B. Moore, Jr.), 헌팅톤(S. Huntington), 톨리(C. Tilly), 월러스틴(I. Wallerstein), 아민(S. Amin), 프랭크(G. Frank), 아리기(G. Arrighi), 스멜서(N. J. Smelser), 만(M. Mann), 홉스봄(E. Hobsbawm), 스카치폴(T. Skocpol), 홉킨스(T. Hopkins), 체이스던(C. Chase-Dunn), 홀(T. D. Hall)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국가의 형성, 자본주의의 전개, 세계경제의 동태와 모순, 국가간 체제의 역학,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생활, 사회운동의 대두, 복지국가의 위기, 사회주의의 해체, 민주주의의 위기와 같은 주제들에 대한 연구 속에서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과거를 소환하고 미래를 투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거대서사(grand narratives)”에 대한 회의가 확산된 탈근대적 분위기 속에서, 큰 주제와 거시적인 범위를 다루는 비교역사적 연구 패러다임마저 이와 결부되어 학술적 지식장의 생산에서 회피되고, 현재는 작은 범위의 세분화된 주제들을 둘러싼 연구들이 선호되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모순과 민주주의의 위기, 생태학적 위기 등 전 지구적이고 인류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게 부상하여 파국적 불안마저 고조시키는 현 시점에서, 비교역사적 전망을 갖는 문명적 성찰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⁸

⁸ 이런 대표적인 거시비교역사적 연구들은 1990년대 초 이래 국내 연구자들의 공동작업들을 통해

앞서 언급한 거대 비교역사 연구자들 중 세계체제론자 3인방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랭크(2005년 작고), 아민(2018년 작고), 월러스틴(2019년 작고)은 근자에 모두 타계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동태와 모순에 대해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었지만 학문적 동지로서 새로운 사회체제의 구상을 위해 서로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세계체제론의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는 월러스틴의 논의를 중심으로 21세기의 문명위기에 대한 성찰과 전망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⁹

미국의 사회학자인 월러스틴은 부모가 폴란드계 유태인으로 1923년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후 1930년 9월 28일 뉴욕시에서 태어나 2019년 8월 31일 88세의 나이로 작고했다. 그는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의 성향 아래 세계체제론을 정립한 우리 시대 최고 지성 중의 한 사람이다.¹⁰ 냉전으로 인한 좌우익 사상의 대치와 각축 속에서 사회과학의 전성기를 구가한 1950년대에 컬럼비아대에서 사회학으로 학사(1951), 석사(1954) 및 박사(1959) 학위를 받았던 그는, 1958년부터 역시 컬럼비아대에서 강사와 교수로 강의해오던 중 1968년 세계적인 신좌파

종합적으로 소개된 바 있다(한국비교사회연구회, 1990; 1992; 김용학·임현진, 2000).

⁹ 사실 프랭크나 아민은 라틴아메리카나 이집트와 중동을 배경으로 작업을 시작한 종속이론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체제론 집단으로 합류한 경우로 볼 수 있고, 본격적으로 종속이론과 구별된 세계체제론의 구성과 확산은 초기에 아프리카 연구에서 업적을 남기며 앞의 둘의 영향을 받은 월러스틴의 기여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체이스틴, 아리기 등을 대표적인 세계체제론 연구자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간에도 많은 입장과 주장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세계체제를 역사적으로 5,000년 된 단일한 체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근대적 세계제국들과 근대 세계체제 즉 16세기 이후 500년 된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같이 복수적인 것이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것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프랭크는 그가 대문자로 표기하는 세계체제(World System)가 늦어도 기원전 4,000년까지는 형성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 온다고 주장하는 반면, 월러스틴 등은 16세기 이후의 근대 세계체제(modern world-system)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Frank and Gills, 1993).

¹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세계체제론(world-system theory)’이라는 표현을 설명 없이 사용해 왔으나, 사실 월러스틴 등은 이것을 이론이라기보다 ‘분석단위’의 혁신을 제안하는 하나의 관점/전망과 방법으로 보고 ‘세계체제 분석(world-system analysis)’이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월러스틴, 2005: 48). 또 ‘시스템(system)’을 ‘체제’로 번역하는 대신 ‘레짐(regime)’과 혼동될 수 있는 ‘체제’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세계체제 학파에 속하는 이들이 제시한 연구와 논의들을 포괄적으로 언급할 때 통상적으로 ‘세계체제론’이라고 지칭하는 관행을 여기서는 따르기로 한다.

운동 확산의 조류 속에서 벌어진 같은 대학의 학생시위 당시 학생들을 지지하였다. 1971년부터는 캐나다의 맥길대학에서 5년간 교편을 잡았으며, 1976년부터 빙엄튼 소재 뉴욕주립대학(현 빙엄튼대학)의 페르낭 브로델 경제, 역사적 체제 및 문명 연구센터(Fernand Braudel Center for the Study of Economies, Historical Systems and Civilization)의 센터장직을 제안받아 1999년 은퇴 시까지 그곳에서 센터장 및 사회학과의 석좌교수로 봉직하면서 연구와 출간, 강의를 지속하였다. 2000년부터 사망연도인 2019년까지는 예일대에서 고등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북미대륙에서만 아니라 간간히 아프리카 및 유럽에서도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30여 권의 저서와 300여 편의 논문에 이르는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특히 1999년 브로델센터에서 발간하게 된 『리뷰(Review)』라는 계간학술지를 통해 그는 세계체제 학파의 이론 개발 및 전파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제사회학회(ISA)의 제13대 회장(1994-1998)을 역임했고, 비슷한 시기에 사회과학의 재구조화에 대한 굴벤키안위원회(Gulbenkian Commission on the Restructuring of the Social Sciences)의 위원장을 맡아 향후 50년 사회과학적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¹¹ 세계 사회과학계에서 그가 세운 학문적 공적과 명성은 미국 사회학회의 가장 큰 명예인 소로킨상(1975)의 수상에서 잘 드러난다. 2004년에는 국제콘드라티에프재단과 러시아자연과학학술원으로부터 콘드라티에프상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윌러스틴은 역사로부터 이론을 향한 방향에서, 장기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체제의 구조와 변동에 관한 설명적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그의 학문적 관심은 초기에는 인도와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구조와 변동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에 있었으나, 후기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형성과 변모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으로 전환되었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식민주의 시기 전후를 통틀어 빈곤과 억압은 그 지역 내부의 자생적 문제가 아니라 유럽 경제의 팽창에 따른 착취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사회 연구

11 이 활동의 결과로 나온 대표적인 보고서 형태의 연구결과가 그와 화학자 프리고진 등이 공저자로 참여한 『사회과학의 개방』이다(윌러스틴 외, 1996).

의 가장 적합한 분석단위가 ‘개별 국가와 사회’가 아니라 전체(the whole)로서의 ‘세계체제’가 되어야 함을 주창하였다. 즉 세계체제라는 공간을 분석단위로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한 특정 국가와 사회의 저발전과 발전을 본질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찍이 월러스틴은 우리가 근대화 도상이 아닌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전후 1970년대까지 서구 사회과학계를 지배하던 근대화론에 중언을 고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는 끊임없는 축적을 위해 만물을 상품화하는 추세 아래 자본주의가 계급, 성, 인종 차별주의와 같은 차이와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노동력을 계층화하는 한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격차는 심화되고 후발국이 선발국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다. 세계체제론이 당시 발전이론의 주류였던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의 반(反)명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구미 사회의 소외와 타락, 그리고 제3세계의 빈궁과 압제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의 불균등하고 위계적인 속성으로 인해 중심부(core)의 발전과 주변부(periphery)의 저발전이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주된 동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¹² 그는 베를린장벽의 해체와 함께 동구권의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1989년을 계기로 자본주의가 쇠락의 길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50년 안에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모색의 방법과 활동으로서 유토피스틱스(utopitics)를 제안하기도 하였다.(월러스틴, 1999).

¹² 비서양세계의 근대화 및 경제성장과 선진국 추격 혹은 경제적 도약(take-off)에 대한 발전주의적 이념은 사회과학으로서 근대화론의 핵심이자 2차대전 이후 근대화론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능하게 한 요소였다. 특히 로스토우(Rostow, 1960)는 이 이론의 경제학적 틀을 제시한 대표적 경제학자로 간주되기도 한다. 월러스틴은 비서양세계, 구식민지 국가들의 저발전이 중심부 국가들의 발전과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설파한 프레비시, 프랭크, 아민 등의 중속이론의 영향하에 『근대세계체제』 1권(1974)을 출간하여 세계체제론을 본격화했고, 이는 당대 주류 사회과학인 근대화론의 쇠퇴에 기여한 지적 결정타 중 하나가 되었다.

II. 윌러스틴의 학문 체계

1. 역사적 사회과학의 입장

윌러스틴은 특히 19세기 동안 발전하여 틀을 확립한 사회과학 분과학문 사이의 벽을 허물어 기존의 학문체계를 새로 구성하고자 하였다(윌러스틴, 1994; 윌러스틴 외, 1996). 그는 사회과학이 내부적으로 분과학문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역사학과 사회과학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이 두 가지 학문을 원래대로 통합하려는 담대한 시도를 하였다. 세계체제론의 구성을 통해 법칙정립적인(nomothetic) 사회과학과 개성기술적인(idiographic) 역사학을 연결짓는 ‘역사적 사회과학’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 탐색이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법칙 정립과 동전의 양면을 이뤄야 한다고 보고 ‘역사적 사회과학’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보편성을 무시한 특수성이 추상을 결여한다면 특수성을 망각한 보편성은 구체를 버린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회과학의 틀 안에서 부분적 편파성을 넘을 수 있는 전체적 통합성을 강조했다.

물론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그의 핵심적 연구 저작들인 『근대세계체제 I, II, III, IV』가 과연 얼마만큼 본인이 주창한 지향과 방법론에 충실하고 적합하게 ‘구체적 특수성’과 ‘추상적 보편성’을 담아내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근대 세계체제, 자본주의 세계경제, 국가간체제, 중심부, 주변부와 반주변부, 반체제운동(anti-systemic movements), 중도자유주의, 지문화(geoculture) 등과 같은 거대한 개념적 틀에서 연역된 논의들이 구체적인 실증적 분석을 대신하거나 일반화의 한계를 보이는 면모도 발견된다.¹³

¹³ 윌러스틴 작업의 강점과 그의 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백승욱(2006: 237-249) 참조. 프랑스의 아날학과 2세대를 대표하는 역사학자 브로델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 스스로를 그의 적자로 간주하는 듯한 면모를 보인 윌러스틴은 하지만 근대 자본주의의 출현 시기 및 기원에 대해서는 브로델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브로델이 근대 자본주의의 기점을 13세기로 보는 데 반해 윌러스틴은 이를 16세기로 보고 있으며, 특히 브로델이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성장과 관련된 원거리 무역을 그 계기로 본 반면 윌러스틴은 네덜란드의 상업영농 우위에서 이를 찾는다. 브로델의 논점은 이후 아리기(2014)의 대표적 작업에서 계승된다. 다른 세계체제론자들과의 입론상의 차이와 별개로, 윌러스틴의 논의에서 발견되는 과도한 일반화의 문제, 20세기 이후 현재진행형인 자본주의

이는 윌러스틴의 ‘근대 세계체제’라는 개념이 그 구성 요소인 국민국가를 시공적으로 관계만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입장 아래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주기적 리듬과 장기적 추세를 해석하는 데서 나타난 한계가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세계체제론은 그것이 역사적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실증’보다는 ‘이해’의 차원에서 지니는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임현진, 1994: 309).

현재의 사회과학이 19세기 유럽의 변화 과정에서 틀을 갖춘 것이라면, 당시 사회학은 사회의 질서와 진보를 동시에 다루는 분야로 정치학이나 경제학에 비해 뒤늦게 출범하였다. 이러한 후발성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종합적 해명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서구지역뿐만 아니라 비서구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 시야와 여러 사회를 대비하는 비교적 검토를 통해 이론적이고 경험적 차원에서 여러 주제와 대상들을 연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회학이 사회과학 분과 중에서 사회현상의 설명에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특히 상보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는 것이다. 추상에서 구체를 연역하듯 구체에서 추상을 귀납하는 방법론적 개방성을 통해, 여러 지역을 비교역사적 시각에서 아우를 수 있었던 것이다.

윌러스틴은 학문의 분화를 표 1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⁴ 18세기 말까지도 지식이 규정되는 방식으로서 철학과 과학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가령 현재 의미에서 ‘과학(science)’은 ‘자연철학(natural philosophy)’이라고 지칭되었다. 18세기 후반에 들어와 현실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으로서의 과학을 옹호하던 학자들은 철학과 과학의 결별(divorce)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경험적 관찰로부터의 귀납에 기초한 이론화이며, 이 관찰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그 관찰이 정당하다고

의 동학에 대한 구체적 분석 미진 등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후 이러한 측면은 제러피와 코제니비츠(Gereffi and Korzeniewicz, 1994)의 상품사슬론(commodity-chain analysis)적 연구로 보완이 더해지거나, 금융적 팽창 혹은 금융화(financialization) 국면에 대한 아리기의 분석 등으로 보완된다고 볼 수도 있다.

¹⁴ 이 표는 윌러스틴(2005)의 저작에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표 1 사회과학 분과들의 형성과 초기 지향/방법 및 연구 대상

학문 분과	초기 학문 지향/방법	연구 대상 시기	연구 대상	
역사학	개별기술적	과거	서구 국가	
경제학	법칙정립적	현재	시장	서구 근대성
정치학			국가	
사회학			시민사회	
인류학	민속지 서술, 현장조사		비서구 원시사회	
동양학	민속지 서술, 문헌연구	과거+현재	비서구 고도문명사회	
지역연구	융합학문적		전후 제3세계	

주장했다. 19세기 들어와 대학에서 전통적인 통합적 철학 교수진은 이제 경험적 연구 및 가설 검증을 강조한 과학 분야 담당과, 이해를 위한 통찰력을 강조한 인문학 담당으로 나뉘게 되었다. 지식은 두 개의 영역으로 분리되었다(스미스, 2001).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정치변동의 정상화’와 ‘인민주권의 부상’이라는 역사적 격변을 경험하게 된 이래, 사회현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서 등장한 사회과학은 순수과학과 인문학의 중간지점에 위치를 설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사회과학자들은 이 사이에서 지식에 이르는 ‘제3의 길’을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따라서 사회과학자들 내부가 ‘과학적’ 지향과 ‘인문학적’ 지향으로 양분되었다.

사회과학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은 역사학이다.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역사학이다. 이에 비해 현재를 연구하는 학문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이는 사회영역이 시장, 국가, 시민사회로 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 영역은 각기 다른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영역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것은 실제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의해서뿐 아니라 지식활동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지식에 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를 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 분과학문들의 연구자들은 점차 역사가들과 견해를 달리했다. 사회과학자들은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이 각각 경험적 분석과 귀납적 일반화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법칙들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회현상의 개별적 특이성을 강조하는 개별기술적(idiographic) 학문인 역사학과는 달리,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은 탐구의 지향에 있어서 일반화할 수 있는 법칙을 추구하는 법칙정립적(nomothetic) 학문이라 부를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이라는 사회과학의 주요 네 전공들이 포괄하는 연구영역은 매우 협소했다. 19세기 역사가들은 ‘역사를 가진 민족들(historical nations)’로 간주된 대상, 즉 문서보관소에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만을 연구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다섯 나라 민족의 역사가 주된 연구대상으로 선택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 다섯 국가들은 세계의 많은 지역을 식민통치했으며, 많은 지역과 무역관계를 맺었고, 때때로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월러스틴에 따르면, 따라서 ‘역사를 가진 민족들’ 바깥에 있는 나머지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 또 다른 사회과학 분과학문으로서 인류학(anthropology)이 등장했다고 설명된다.

초기에 인류학자들은 실제 식민지 또는 식민지와 거의 다름없는 상황에 놓인 원시사회를 연구했다. 인류학자들의 기본적인 연구방법은 참여관찰이었다. 도서관이나 문서보관소에서 이루어지는 역사학자들의 문헌연구 작업과 대비하여, 인류학자들은 현장조사(field-work)에 기반하는 민속지(ethnography) 서술을 주로 수행했다. 그런데 세계는 ‘근대국가들’과 ‘원시사회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범유럽권 외부에는 ‘고도문명(high civilization)’이라고 불리던 광대한 지역, 예컨대 중국, 인도, 페르시아, 아랍권이 있었다. 이들 문명권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이들은 글쓰기 문화를 갖고 있었다. 둘째, 기독교가 아닌 지배적인 종교가 한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인 면에서 범유럽 세계만큼 ‘근대적’이지는 않았지만 원시사회들과는 달랐다. 따라서 이 지역의 이문화(異文化)를 이해하기 위해 동양학자들(Orientalists)이 필요했다.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민속지 서술과는 달리 동양학자들은 주로 현지 언어로 쓰인 텍스트들을 독해함으로써 연구를 수행했다. 그렇지만 ‘원시사회들’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과 ‘고도문명사회들’을 연구하는 동양학자들은 어떤 인식론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연구대상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는데, 이 특수성은 서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 특성과는 반대의 것들이라는 함의를 깔고 있었다.

그런데 1945년에 매우 중요한 세계적 변동이 일어나면서 사회과학 전공들의 구성도 중대한 변화를 갖게 되었다. 첫째, 2차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세계체제에서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해 패권을 쥐게 되었고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학체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부각되었다. 둘째, 나중에 ‘제3세계’라고 불리게 된 나라들이 정치적 격동과 지정학적 자립 선포의 장소로 부각되었다. 셋째, 팽창하고 있던 세계경제와 강력히 증가하던 민주화 경향의 조합은 교수와 학생, 그리고 대학의 숫자 면에서 엄청난 규모로 세계 대학체제의 팽창을 가져왔다. 이 세 가지 변화는 과거 한 세기에서 한 세기 반에 걸쳐 공고화된 분과학문 사이의 학문적 분업을 형클어 놓게 되었다.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자들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서구와는 다른 세계의 사회적 현실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분과학문의 ‘방법론’에 집착하기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더 큰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그리고 정치학자들을 새로운 학문분과의 울타리 내에서 육성하는 ‘지역 연구(regional studies)’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¹⁵ 이는 이후 미국과 나아가 세계의 대학체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성격상 상대적으로 ‘개별 기술적인’ 학문들, 곧 지리적인 또는 문화적인 의미에서 특수한 ‘지역’에 관한 연구를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같은 기존의 ‘법칙정립적’ 학문들과 역사학의 연장으로 어떻게 융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딜레마가 등장했다.

윌러스틴이 이처럼 사회과학의 등장과 분화의 역사, 형성기 이래의 특징에 주목하는 것은, 19세기에 틀이 굳어져 현재까지 내려온 사회과학 내부의 분과학문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합적 지식으로서의 역사적 사회과학이라는 ‘단일 학문성(undisciplinarity)’을 지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이다(윌러스틴, 2005: 224).

2. 분석 단위로서의 세계체제와 비교역사적 방법

사회과학에서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주로 개인, 집단, 계급, 국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 중 국가사회라는 분석의 단위가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윌러스틴은 그러한 기존의 국가사회를 뛰어넘는 분석의 단위로, 총체성을 갖는 ‘역사적(사회)체계(historical system)’로서의 ‘세계체제(world-system)’를 제시했다. 세계체제는 다시 ‘세계제국’(로마, 중국, 비잔티움 등)과 ‘세계경제’라는 두 가

¹⁵ 김경일(1998: 153-204) 및 윌러스틴(2001) 참조.

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윌러스틴의 연구는 주로 근대 세계체제를 구성하는 장기 16세기 이후의 자본주의 세계경제 즉 후자에 집중하였다.¹⁶ 그런데 그러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하나의 사례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는 역사적 체계로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상정하고 그것의 전개과정에서 시간차원에 따른 비교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의 단위는 레긴(Ragin, 1989)이 지적한 대로, 자료상의 범주와 이론상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인 관찰단위는 자료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대상을 지칭하며, 후자인 설명단위는 인과관계의 유형을 추론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범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역사사회학자 베링턴 무어의 저작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1966)에서 설명단위는 ‘계급’이지만, 관찰단위는 ‘국가’가 된다. 윌러스틴의 『근대세계체제』 연작에서도 이론적 설명단위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근대 세계체제가 되지만 자료상 범주에 해당하는 관찰단위는 그것의 골격을 이루는 중심부와 주변부, 그리고 (세계체제론을 그 지적 뿌리 중 하나인 종속이론과 구별하는) 반주변부(semi-periphery) 국가들이 된다.

윌러스틴의 비교역사적 연구는, 맥마이클(McMichael, 1990)의 개념화를 따르면 ‘통합된 비교(incorporated comparison)’라는 새로운 일반화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맥마이클은 비교사의 두 가지 차원을 제시한다. 한편으로 이론의 목적이 기존의 인과관계의 적용에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인과관계의 구성에 있는가를 구분하고, 다른 한편으로 연구의 목적이 지식세계에 대한 형식적 이해에 있는가 아니면 현실세계에 대한 실질적 이해에 있는가를 판별한다. ‘통합된 비교’는 부분이 변화하는 전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분석의 단위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국가간체제와 같은 개념적 전체가 상정되지만 부분의 역학 또한 중시된다. 이러한 ‘통합된 비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수의 사례를 전체로서의 과정 안에 위치시켜 분석하는 복수적(multiple), 통시적(diachronic) 전략과, 세계역사적 국면에서 특정 공간 내외에 걸쳐 이루어지는 변이를 분석하는 단수적(singu-

¹⁶ 윌러스틴에 따르면 총체적 사회체제이기에 분석단위로 선택된 세계체제는 다시 세계제국과 세계체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는 ‘단일한 정치구조’ 속에 지리적이고 기능적인 경제연결망이 봉쇄되어 있고, 후자는 국가간체제(interstate system)라고 할 수 있는 ‘다층적 정치문화구조’ 속에 경제적 교역망이 구조화되어 있다(이수훈, 1992: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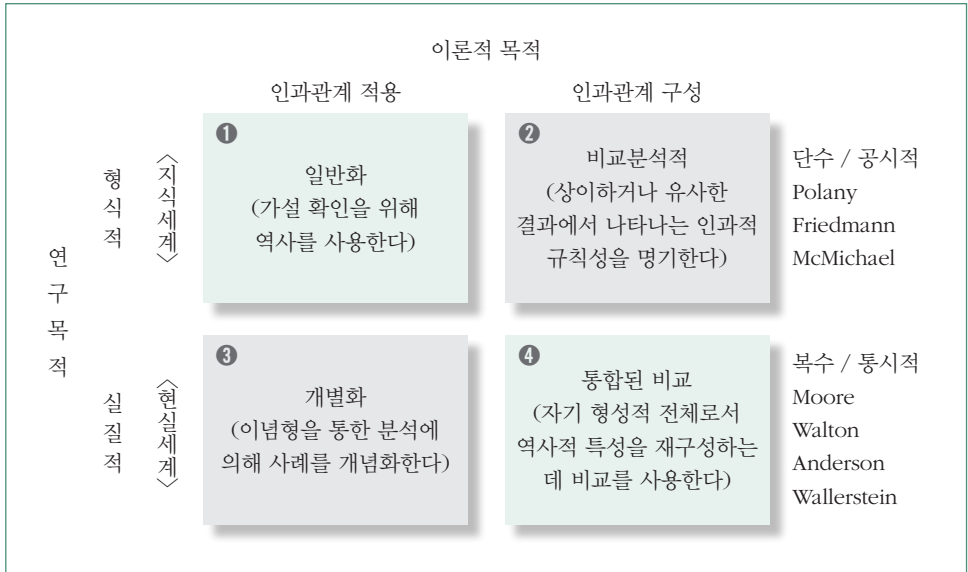


그림 1 비교사의 세 가지 전략: 맥마이클

lar), 공시적(synchronic) 전략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이 대표적인 통합된 비교라고 할 수 있다.

III. 세계체제론의 해부¹⁷

월러스틴에 의해 정립된 세계체제론은 사회과학과 역사학의 다양한 전통에 입각하여 사회변동의 거시구조를 밝히려는 접근 방법이다. 그는 베버, 슈페터 및 폴라니의 역사경제학, 레닌과 모택동의 실천적 맑스주의, 발랑디에의 반식민주의 사회학, 그리고 남미의 종속이론 등을 중요한 지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더해서, 제3세계주의적 전망을 제시한 파농(Frantz Fanon), 프랑스 아날학파의 사회사 이론을 주도한 브로델, 그리고 뉴턴식 확실성 과학에 이의를 제기하며 복

¹⁷ 이 부분은 임현진(1994)의 작업에 주로 기초하고 있다.

표 2 윌러스틴에 따른 연구대상의 분류

		1. 소체제
역사적(사회) 체계	2. 세계체제	(1) 세계제국(고대 로마, 중국, 비잔티움 등)
		(2) 근대 세계체제(16세기~) (=자본주의 세계경제+[주권적] 국가간체제+[중도자유주의] 지문화)

잡성 과학을 제시한 노벨상 수상 과학자 프리고진을 자신의 관점 변환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세 사람으로 꼽고 있다(윌러스틴, 2014: 82).

윌러스틴에 의하면 원래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 사회과학과는 달리, 루카치(2015)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역사의 설명에서 ‘총체성(totality)’을 추구하는 데 주된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주류 마르크스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연속성을 갖고 변화하는 사회 체계의 총체성을 포착하는 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가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체제(mini-system), 세계제국(world-empire), 그리고 세계경제(world-economy)와 같이 이미 존재했거나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자족적이고 완결된 성격을 갖는 사회체계에 대해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표 2).¹⁸

이러한 견지에서 윌러스틴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라는 역사적 사회체계에 주목한다. 통시적으로 볼 때, 세계체제로서의 자본주의 경제는 봉건주의의 위기 아래 원시적 축적의 기반을 마련하였고(1450~1640), 중상주의 시대에 강화되었으며(1640~1815), 산업자본주의 시기에 제국주의 형태를 띠었고(1815~1917), 러시아 혁명 이후 현재까지(1917~) 전 세계적으로 정착되었으며 내부적인 긴장과 모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는 단일한 노동분업의 원칙 아래 상품생산과 시장교환을 통해 상호 연관되어 있는 다원적 문화와 다중적 정치를 갖는 국가사회를 하위구조로 하고 있다. 결국 세

¹⁸ 윌러스틴은 국민국가, 민족사회, 공동체 등과 달리 그 안에서 생활이 자기충족적이고 내부적 발전동인을 갖는 사회체제로 ‘소체제’와 ‘세계체제’ 양자만을 인정한다. 세계체제에는 분업과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지만, 소체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또 세계체제의 두 유형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에 존재했던 세계제국(기축적 분업, 단일 정치중심/대규모 관료구조, 다양한 문화가 특징)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근대 세계체제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기축적 분업, 복수의 정치중심, 다양한 문화가 특징)가 존재한다(이수훈, 1992; 윌러스틴, 2005: 221).

세계체제론의 핵심은 전술한 특징을 갖는 자본주의 경제를 단일하고 거대한 과정을 갖는 시공적 전체로 파악하여 장기적인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사회 변동을 조망하는 데 있다.

월러스틴의 역사적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는 정치경제학의 패러다임에 입각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의해 제기된 정치경제학은 콩트식의 순수사회학과 리스트류의 정치경제학이 지니는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현상 옹호적인 입장을 비판하면서 성립한 비교적 오랜 전통을 갖는 사회과학의 이론적 전망이다. 정치경제학의 요체는 잉여의 추출이 생산과 분배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계급관계와 지배구조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데 있다.

월러스틴은 시장에서 이윤 추구를 위해 자본이 노동을 활용하면 그것이 임금노동(자본주의의 자유노동과 사회주의의 국가노동)이든 강제노동(예컨대 노예노동, 농노노동)이든 모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 이행 논쟁에서 드러난 주요 이행 원인에 대한 차별적인 세 가지 입장들 — 각각 교환관계의 확대(스위지), 생산관계의 모순(둡), 그리고 권력구조와 생산관계의 변화(앤더슨)를 중시하는 — 중에서 월러스틴의 자본주의관은 첫 번째 계열에 속한다고 하겠다.¹⁹

월러스틴에게 자본주의란 하나의 역사적 생성물로서 탄생, 성장, 종말이라는 생애 주기를 갖는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하나의 세계체제를 구성하는데, 민족, 국민, 계층, 인종 등의 요소들은 국민국가 내부가 아니라 세계경제 자체의 문제

¹⁹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의 형성에 기여한 당대의 주요 지적 자극으로서 프랑스 역사학계 아날 학파의 브로델과 남미 등 중속이론의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 월러스틴은 여기에 더해, 공산권 학자들 사이의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과 ‘둡-스위지 논쟁(Dobb-Sweezy debate)’으로 알려지기도 한 서유럽 경제사학자들 사이의 ‘자본주의 이행 논쟁’을 추가로 언급하며 총 네 개의 지적 논쟁들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을 회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월러스틴, 2005: 38). 여기서 둡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영국에 한정해서 논하며 생산관계와 같은 내재적인 요소들에서 발견했고, 스위지는 유럽 차원에서 이행을 논하며 무역과 같은 외재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월러스틴은 후자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스키치폴과 브레너 등으로부터 ‘신스미스주의자’ 혹은 ‘유통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세계체제론의 동료이자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상업자본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리기는, 이러한 이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월러스틴의 논의가 오히려 영주제 붕괴 이후 네덜란드의 헤게모니적 부상을 네덜란드 내부의 상업영농 우위에서 찾는 등 농업 내부 분화(농업자본주의)에 주목하는 둡의 논리에 다시 빠져들어 불철저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백승욱, 2006: 238).

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이해는 세계경제에 대한 집단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1. 만물의 상품화

윌러스틴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축적을 위하여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한 재화를 시장에 판매하는 특징을 지닌다. 일찍이 마르크스가 간파한 대로 시장은 사회적 생산관계를 은폐하는 장막이다. 모든 재화, 용역, 노동, 자본, 기술, 지식 등은 그러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매매된다.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장기적 추세’는 만물의 상품화에 그 요체가 있다. 자본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국가들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품사슬에 의해 작동되어 왔다. 사회적 분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품사슬이 기본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양극화에 기반하고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그것은 지리적 확장을 거치면서 부등가 교환을 통해 ‘중심부 지대’와 ‘주변부 지대’라는 공간적 계서화(繼序化)를 가져왔다.²⁰ 이러한 자본주의는 표면적으로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합리적인 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독점에 의해 조작됨으로써 총자본과 개별기업 사이의 이해상충을 야기하는 지극히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체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상 독점적 관행과 자유경쟁은 자본주의의 두 가지 커다란 국제적 관행이다. 중상주의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일반적 경향이라면, 자유무역은 19세기 영국 등과 같은 헤게모니 국가에 의한 일시적 방편일 뿐이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견해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노동력의 프롤레타리아화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윌러스틴은 지난 400여 년 간 프롤레타리아화한 노동력이 실제로 전체 세계노동력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보

²⁰ 윌러스틴에게 있어서 ‘중심부’, ‘주변부’와 같은 세계경제의 ‘기축적 분업(Axial division of labor)’을 드러내는 개념쌍은 위계화된 능력을 갖춘 국가를 의미하기보다 분류의 기준과 정의상의 핵심 요소에 있어서 생산과정의 수익성(profitability)과 연관된 것으로 간주된다. 주변부와 대비되게, (준)독점적 상품생산 과정이 지배적이고, 이를 통해 통합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더 큰 이윤을 불균등하게 수취할 수 있는 국가들이 중심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윌러스틴, 2005: 73).

면서, 그 원인을 ‘반(半)프롤레타리아화’ 현상에서 찾는다.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를 가계(household)로 파악할 때, 자본가는 임금 소득의 비율이 비임금 소득보다 높은 프롤레타리아보다 비임금 소득의 비율이 임금 소득보다 높은 반프롤레타리아 노동자를 고용하기 원한다. 왜냐하면 반프롤레타리아 가계에 속한 노동자는 다른 가계소득으로 말미암아(가족노동, 지대수입, 이전소득 등) 프롤레타리아 가계에 속한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되고 자본주의 경제의 이윤율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자본가들은 고임금에 따른 생산비용의 상승을 저지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화를 지연하고 오히려 반프롤레타리아화를 조장하게 된다. 자본주의는 중심부에서 프롤레타리아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새로운 변방을 편입함으로써 반프롤레타리아화된 노동력을 확보해 온 것이다. 노동력의 성차별, 연령차별, 인종차별도 실상은 그러한 반프롤레타리아화의 방편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이다.

윌러스틴은 스미스(Adam Smith)의 찬사와는 달리 자본주의는 결코 조화로운 체제가 아니라고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그 체제가 부동산교환을 통해 형성된 경제적 비효율성과 상품사슬의 재구성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성장과 정체의 주기적 변동을 통해 제어해 왔다는 사실에 있다. 이는 50년마다 팽창(A국면)과 수축(B국면)을 거듭하는 이른바 ‘콘드라티에프 주기’를 말한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장기적인 주기적 변동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체 국면을 맞이하였지만 그때마다 체제 개조에 의해 그것을 극복하고 존속해 올 수 있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한 사실이 열거될 수 있다. 첫째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위계적으로 조직된 상품사슬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중심이 나타나면 기존의 다른 것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단지 부단한 자리바꿈만 반복한다. 둘째로 주로 중심시대에서 노동력의 프롤레타리아화가 진전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유효수요는 증대된다. 셋째로 반프롤레타리아 가계 노동이 지배적인 주변지역을 세계경제에 편입함으로써 노동비용을 감소시킨다.

2. 반체제운동

월러스틴에게 국가란 세계경제 안에서 이윤 확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본가 계급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도구주의적 마르크스주의 국가관의 전형에 가깝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가 자본축적의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기제로 작동해 왔다는 점이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권력자원을 지니고 자본주의 경제를 정치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렛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첫째로 국가는 영토 관할권을 통해 재화, 자본, 노동이 국경선을 넘나드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시장 안에서 국제분업의 작동 양식에 대해 국가가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토 관할권에 의한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 생산관계를 지배하는 규칙을 결정하는 법적 권한으로서, 국가는 이를 통해 자본축적에 용이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노동력의 상품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완전한 프롤레타리아화를 저지하기도 한다. 셋째로 국가는 징세권을 갖고 막대한 양의 자본을 집적함으로써 그것을 공공복지에도 사용하지만 부유한 층에 유리하도록 자본축적 과정을 도와준다. 넷째로 국가는 군사력의 독점을 통해 질서유지라는 명분 아래 자국의 노동자를 억압하거나 혹은 다른 국가의 경쟁 상대자로부터 자국의 노동자를 보호한다.

자본주의 세계경제 안에서 모든 국가들은 중심-주변 위계를 중심으로 힘의 강도에 따라 국가간체제를 형성한다. 이러한 국가간체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일련의 규칙을 강제한다. 바로 여기서 월러스틴은 근대 국가가 완전히 자율적이고 평등한 정치적 실체라는 ‘국가주권의 신화’에 대해 반박한다. 오히려 자본주의 세계경제 안에서 국가는 자신의 합법적 권위를 행사할 때조차도 제약을 갖는다. 역사적으로 국가간체제에는 관료나 군대의 힘보다도 산업, 상업, 금융 등의 경제력에 기반한 헤게모니 국가가 출현하여 주도권을 장악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예컨대 17세기 네덜란드, 19세기 영국, 그리고 20세기 미국).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여러 압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투쟁, 약한 국가의 강한 국가에 대한 반제국주의 투쟁, 그리고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중에서도 극심하게 억압받는 부

류 사이의 언어적·인종적·문화적 투쟁, 그리고 개별 자본가들 사이의 투쟁이나 한 국가나 인종 집단에 속한 기업가와 다른 국가나 인종 집단에 속한 기업가 사이의 투쟁 등이 부단히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정치 투쟁은 국가라는 영역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투쟁들에 연루된 모든 주체들은 국가 권력의 장악을 최대의 목표로 하는 경향을 갖는다.

월러스틴에 의하면 자본주의 세계체제 안에서 두 가지 주요한 반체제운동(anti-systemic movements)이 나타났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노자 간의 계급적 모순에 따른 노동-사회주의 운동과,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구조적 불평등에 따른 민족주의 운동이다. 이 두 종류의 운동은 모두 2단계 전략을 선택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운동주도 세력은 혁명적 이데올로기에 호소하고 광범한 대중의 힘을 동원하는 국가 권력의 탈취를 기본 전략으로 하였고, 다음 단계의 전략은 이 세력의 집권 후 사회를 자신들이 표방하는 이상에 맞추어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지닌다.

그런데 노동-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은, 집권 후 모든 사람이 평등한 체제를 조직하는 것에 힘쓰기보다 불평등한 체제 아래에서 권력을 잡은 집단만의 지위 상승을 시도하는 경향을 역사적으로 보여 주었다. 더욱이 이러한 반체제운동은 국가 권력의 장악을 목표로 함으로써 전혀 ‘반체제적’이지 않은 집단과 전술적 동맹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반체제운동은 애초 표방하던 사회변화를 향한 이상의 추구로부터 이탈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 안에서 반체제운동은 비록 그것이 성공한 경우라도 그 주도 집단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간체제의 규칙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냈다. 이른바 혁명을 겪은 사회주의 정권들조차도 ‘자본축적’이라는 지상명령 아래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일부로 기능해 왔음이 이를 잘 예증해 준다. 월러스틴은 본다. 결국 반체제운동은 새로운 대안적 세계질서의 형성으로 발화하기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 내로 흡수되었을 뿐이다.

3. 보편주의 이데올로기

월러스틴은 ‘근대성’이 새로운 것이고 ‘전통’이 오래된 것이라는 근대화론의

기본 가정을 반박한다. 지구상에서 다양하게 개화되어 온 여러 유형의 문화는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산물일 뿐이다. 오히려 근대화의 과정에서 과학적 문화라는 부르주아적인 세계문화 혹은 중도적 자유주의는 그가 명명하는 바 ‘지문화(geoculture)’—세계체제 전체에서 널리 수용되고 그 뒤 사회적 행위에 제약을 가한 일련의 사상, 가치, 규범—로서 보편주의 이데올로기로 둔갑하였다.

보편주의 이데올로기는 영원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오도된 신앙 속에서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세계경제와 사회구조를 유지해 주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것이 출현하게 된 이면에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안정도모라는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 보편주의 이데올로기가 한편으로 자본 축적에 요구되는 문화적 규범의 주입을 통해 특정인들을 동조적 인간형으로 사회화했다면, 다른 한편으로 주변 지역의 엘리트들을 ‘서구화’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반란의 가능성을 줄여 왔던 것이다.

보편주의 이데올로기는 세계적 차원에서 생산과정의 철저한 통합과 국가간 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다른 나라 부르주아와 전 세계의 중간 간부층의 활동을 이끌어 줌으로써 자본축적을 촉진해 왔다. 행정가, 기술자, 과학자, 교육자 등과 같은 중간 간부층에게 공통언어가 된 과학적 문화는, ‘능력주의(meritocracy)’의 명분 아래 그들의 권리와 지위의 유지와 계승을 보장해 준 대가로, 그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 자본에 복종하고 노동을 억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었다. 보편주의 이데올로기의 중핵으로서 과학적 문화는 바로 문화제국주의의 위장된 가면일 뿐이다.

자본주의는 세계경제의 전체적 노동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성·연령별 차별 이외에 사회생활을 인종집단화하여 왔다. 그러한 인종집단에 따른 노동력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특정 종교, 언어, 가치기준 및 일상적 행동 양식에 따른 문화 전통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오늘날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상 그렇게 오래된 유산이 아니며 오히려 자본주의의 작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종차별주의는 사회생활에서 직업적·경제적 역할의 서열을 인종집단별로 고정한 것이다. 그것은 노동력의 위계화를 통해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포괄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인종차별주의는 여러 집단에게 제각기 담당

할 행동의 틀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에서, 비단 자기억압적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보편주의와 인종차별주의는 전자가 개방적이고 평등을 지향하는 반면, 후자가 폐쇄적이고 대립지향적이라는 점에서 표면상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쌍으로 양립해 왔다. 자본주의 경제 안의 강자가 약자에게 준 선물로서 보편주의에는 인종차별주의가 담겨 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불평등한 위계체제 내에서 낮은 지위를 감수하든가 아니면 그러한 잘못된 권력관계를 뒤엎을 수 있는 무기를 포기하든가 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계몽사상의 외피를 걸친 반체제운동도 보편주의 이데올로기의 수인(囚人)이었을 뿐이다. 반체제운동은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 타도 대상으로서 ‘지배계급의 사상’에서 끌어낸 전략을 활용하고 결국은 보편주의 이데올로기의 함정에 빠져 버렸다. 국가권력 장악 후의 사회민주주의나 공산주의는 모두 만물의 상품화라는 논리를 극복하지 못했다. 월러스틴은 ‘사회주의적 인간’조차도 거칠고 사나워진 테일러주의로부터 차별성을 찾을 길은 없으며, 문화적 민족주의도 국가구조를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국가간체제의 가동에 기여해 왔을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²¹

4. 대안적 세계질서

월러스틴은 자유주의자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자도 ‘진보’라는 허구적 개념의 포로가 되었다고 본다. 진보의 개념은 사회주의를 정당화했지만 또한 자본

²¹ 월러스틴은 특히 근대 세계체제를 지탱해 오는 보편주의적 지문화로서 ‘중도 자유주의’가 프랑스혁명 이후 지배적이었음을 후기에 더 명료화한다. 노동-사회주의적 혹은 민족해방주의적 반체제운동도 이러한 중도 자유주의 지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한계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병행하는 논의를 추가하는데, 근대 세계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알리는 서막으로서 1986년 ‘68혁명’을 중시하고, 이를 진정한 의미에서 1789년 프랑스혁명에 이은 두 번째의 혁명으로 보기도 한다. 68혁명이야말로 기존의 전통적인 양대 반체제운동에 대한 진정한 비판이라는 점이다.

주의도 정당화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진보라는 발전 모델을 받아들임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실험’의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뒷에 걸려들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자본주의가 과연 자유, 평등, 우애의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진보해 왔는가를 검토하는 데 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안락한 물질생활을 향유하고 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생활의 질’(아노미, 소외, 정신질환, 환경오염, 핵전쟁, 전염병의 빠른 세계적 확산 등)은 거꾸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월러스틴은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에서도 이론이 분분한 프롤레타리아의 절대적 빈곤화가 현존 자본주의 안에서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물론 산업노동자들이 과거보다 현재 더 잘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세계 노동력의 압도적 다수인 농촌에 살거나 농촌과 도시 빈민굴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들은 500년 전 그들의 조상보다 못살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노동의 강도나 착취의 정도에서 그전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그러한 정신적·물질적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은폐하는 장치를 개발해 왔다. 첫째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개인적·인종집단적·직업집단적 지위 이동이 있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운 인구가 세계경제 안으로 유입됨으로써 하위계층의 규모가 더 커졌고 그러한 지위 이동의 효과는 상쇄되었다. 둘째로 사회과학 및 역사학 분야의 연구는 세계인구 중 10~15%만을 차지하는 최상위층과 ‘중간계층’(부르주아)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 왔다. 그러나 최상위층 1%와 이들 중간계층(10~15% 중 1%를 뺀 나머지) 사이에 분배의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그들 전체와 나머지 다른 85% 인구 사이의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셋째로 지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반체제운동의 집단적 압력으로 인해 절대적인 양극화가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조차도 지난 500년간의 절대적 양극화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자본주의 세계경제 혹은 현재의 세계체제로부터 새로운 세계체제로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다운 진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적이라고 자칭하는 현 국가나 운동은 미래를 위한 안내자로서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월러스틴은 진보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새로운 역사적 체제는 평등과 형평, 아울러 민주주

의를 극대화하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 그것은 적어도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착취를 근절하고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월러스틴에게 공산주의는 역사적 전망이 아니라 현재의 신화로 존재한다. 현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경제, 정치, 문화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새로운 역사적 체제의 출현을 위해 열려 있다. 현재의 세계체제의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다음 체제를 향한 사람들의 투쟁에서 나타나는 중대한 균열을 그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한편으로는 노동-사회주의 운동이나 민족해방운동과 같은 전통적 반체제운동이 지향한 ‘다수의 자유 확장’과 1968년의 세계혁명이라는 새로운 반체제운동이 지향한 ‘소수의 자유 확장’ 모두를 지향하는 이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자유나 소수의 자유 둘 중 하나를 더 선호하는 것처럼 위장한 채 비자유 체제를 추구하는 이들” 사이의 균열이다(월러스틴, 2005: 204). 이와중에 등장하게 되는 불확정성은 더 자유롭고 평등한 대안적 체제를 전망하는 반체제운동에 큰 장애물로 존재한다. 월러스틴은 단지 강단에서 세계체제론이라는 이론적 작업에 종사하는 학자로 머물지 않고,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삶의 구현을 향하여 반체제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대안적 세계체제의 이행 및 전망과 관련하여 ‘이론적 실천’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월러스틴은 인류 사회의 지선의 이상을 프랑스 혁명이 일찍이 제시한 자유, 평등, 박애(연대)의 가치에서 찾고 있다. 그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대안적 세계질서는 모든 종류의 반체제운동들이 전 지구적으로 공동의 전선을 펴 나갈 때 성취가 가능한 것이라고 그는 본다.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그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 새로운 역사적 체제를 향한 붕괴의 과정에 돌입해 있다는 그의 세계체제 위기론도 ‘운동’과 ‘과학’ 두 영역에서의 투쟁의 성사에 따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5. 세계체제와 생태위기

자본주의의 위기는 생산양식의 특수한 구조와 작동방식에 내장된 착취와 지배에서 유래되는 고유한 위기로 현재까지 비판이론의 대표격인 마르크스주의에

서 지목되어 왔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적 반체제운동의 소산으로 간주되어 온 현실 사회주의 체제 내부에서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적 차원의 환경재앙을 야기할 수 있음이 폭로된 이후,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비판이론이나 반체제운동 진영 내부에서 생태주의적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녹색당 중심의 정치적 생태주의 혹은 북친(Murray Bookchin)을 중심으로 한 아나키즘적 사회 생태주의와 함께 마르크스주의적 생태주의 혹은 생태사회주의 진영의 작업들도 개시되었다. 대표적인 초기의 생태마르크스주의자 오코너(James O'Connor)의 경우, 자본주의적 착취의 모순과 구별되는 인간과 자연의 모순을 설정하고 이를 결합하려 하기도 했다. 가령 자본축적에 따른 생산조건의 악화는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이윤을 압박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계급적대보다는 자연 위기로 인한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 착취와 자연 착취로 인한 생태위기를 별개의 근원에서 유래하는 이원론으로 귀결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월리스틴의 경우 자신의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중심부의 이윤율 하락이 자본비용을 외부화하고 이 과정에서 환경피해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중심부는 생태위기를 주변부에 전가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세계체제적 차원에서 생태위기의 확산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는 설명력이 있지만, 생태위기의 원인을 자본비용 전가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 즉 노동을 통한 자연 착취에 바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무어, 2020).

생태위기와 연결된 작금의 코비드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세계체제의 위기를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위기가 기존의 기축적 분업과 연계된 상품사슬을 변화시키고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가령 감염병의 검진기구 및 방역물품 생산 설비가 중국이나 한국 등 서구 밖에 집중된 까닭에 팬데믹 상황에서 서구 중심부 국가들이 겪고 있는 혼란상황이 이러한 국제분업 재편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존재한다. 이는 세계체제에서의 분업으로 연결된 자유주의적 생산 및 무역질서가 보다 국가간의 경쟁적 보호주의에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 팬데믹이 세계체제의 기축적 분업에 충격을 주고 재편을 이끄는 상황인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전 각국 간 경쟁적 보호주의의 물결이 결국 정치군사적 충돌 상황으로 귀결한 역사적 선례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추세의 부정적 귀결에 대한 우려와 대책의 모색은 아무리 충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코비드19의 백신 생산과 관련된 중심부 국가 간 혹은 서구와 중국, 러시아 간 경쟁 등이 세계적 헤게모니 경쟁과 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새로운 국면과 갈등이 팬데믹의 각국 내 위기 관리의 급박성으로 인해 당장 표면화되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언젠가 증기의 분출을 앞둔 압력밥솥과 같이 세계체제에 위기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열기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헌팅턴이 예견한 문명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이미 위기 국면으로 월러스틴에 의해 진단받은 근대 세계체제로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전례없는 격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IV. 맺음말

세계체제론은 비단 사회학만이 아니라 역사학과 정치학을 포괄하는 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영향과 반향을 일으켜 왔다. 무엇보다도 세계체제론은 국민국가를 넘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국가간체제라는 부분과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그리고 거시적 사회 변동을 개별 국가·지역·세계 수준에서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 주었다. 세계체제론은 더 나아가 종속이론의 연장선 위에서 사회학적 근대화론의 전근대/근대 이중사회론, 신고전 경제학의 비교우위론, 그리고 정치발전론의 엘리트 역할 등에 관한 논의가 지니는 한계에 대해 결정적 비판을 제시하였다. 특히 세계체제론은 총체로서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 안에서 작동하는 국가 간의 영합 논리에 의한 발전과 저 발전을 바라봄으로써, 국제관계 연구에서 주류화된 기존의 현실주의적 혹은 자유주의적 시각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체제론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월러스틴의 역사적 사회과학이라는 대담한 학문적 모델과 방향 제시는 장기 16세기 이래 자본주의 역사의 서술에 있어서 유럽중심적 시각을 의도만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세계체제론은 냉전체제의 해체, 사회주의권의 붕괴, 그리고 현재 미국, 유럽, 중국 사이의 갈등과 같이 급변하는 국제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다. 월러스틴에 의하면 냉전체제란 미국과 구소련이 각각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위적 기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소련의 몰락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는 국내적으로 집합적 사용가치를 추구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윤 확대를 위해 세계경제에 참여한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졌다. 또한 그는 국제화, 지구화의 경향은 국민경제의 독자성을 침식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주권, 나아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세계질서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지대와 유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사이의 첨예한 경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그의 과거의 예고는, 21세기 첫 20년이 지나가는 현재 코비드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팬데믹 국면과 결합되어, 패권갈등을 함축한 양상의 미중간 경제전쟁과 정치군사적 신냉전의 조짐이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어긋나고 있다.

또한 역사적 체제로서 자본주의에 대한 월러스틴의 해석에 전혀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브로델의 비판대로, 월러스틴은 세계제국과 세계경제를 구분하기 위하여 마르크스의 분석을 그대로 수용하여 유럽에서 13세기경부터 발생한 자본주의를 16세기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욱이 그러한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봉건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다른 생산양식과 공존하면서 전일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월러스틴은 생산양식이 ‘지역적 범주’라기보다는 ‘논리적 범주’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체이스틴이 제창한 ‘지구적 구성체(global formation)’라는 개념은, 생산양식의 다층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지만, 특정의 생산양식이 지배적인 한 다른 생산양식의 의미를 평가절하한다는 점에서 월러스틴의 논지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월러스틴에 대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교환관계만을 중시하는 신스미스적 유통주의자라는 비판(브레너), 국가구조와 계급관계를 국제시장의 기회로 환원하는 경제결정론적 맑스주의자라는 비판(스카치폴), 또한 세계체제 안의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폐쇄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적 맑스주의자라는 비판(트림버거) 등이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적절히 보완될 때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은 더욱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의 자본주의가 엉망이라는 데 진보와 보수 차이가 거의 없다. 좌파 진영

의 피케티(Piketty, 2014)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자본세’의 도입을 주장했을 때 많은 박수를 받았지만, 지금 우파 진영의 테퍼(Tepper, 2018)는 그의 처방이 “암환자에게 마약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독점기업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면서 경쟁을 압살하는 가운데 자본주의는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깃발 아래 자본주의를 선도했던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더 많은 시장’, ‘부유세’, ‘토빈세’, ‘포용적 소유기금’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제도적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정통 우파에서 나올 지경이다. 이제 주주 자본주의를 넘는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자본주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임현진, 2020).

월러스틴은 미국의 헤게모니가 1980년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붕괴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다.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권력전이가 일어나면서 두 나라 사이에 패권다툼이 본격화되고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간간히 부인하지만,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세계체제에서의 헤게모니 이행 및 새로운 헤게모니로의 부상을 의도함으로써 현재 다른 주요국들의 경계와 반발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월러스틴은 이러한 세계체제의 재편 전망에 대해, 단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새로운 헤게모니로의 전이라는 변화가 아닌 본격적 대안으로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세계질서라는 유토피스틱스를 제시하고 있다. 월러스틴의 비교역사적 전망에 따라 세계체제적 수준에서 현재를 진단하는 가운데, 단지 현존 세계체제 내의 헤게모니 이행 전망을 넘어서, 우리는 현존 세계체제 자체가 제기하는 생태적 위기, 정치경제적 갈등, 팬데믹 등 문명적 위기를 극복하고 과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일. 1998. “전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성립과 발전.” 김경일 편.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 김병수. 2019. “유럽 정치지형 대변화…‘기성정당 몰락, 극우·녹색 대약진.’” 『연합뉴스』 (2019/5/27).
- 김용학·임현진. 2000. 『비교사회학: 쟁점, 방법 및 실제』. 나남.
- 김홍중. 2019. “인류세의 사회이론1: 파국과 페이션시(patency).” 『과학기술학연구』 19권 3호, 1-49.
- 루카치, 게오르크 저. 조만영, 박정호 역. 2015. 『역사와 계급의식』. 지만지.
- 무어, 제이슨 W. 저. 김효진 역. 2020.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자본의 축적과 세계생태론』. 갈무리.
- 백승욱. 2006. 『자본주의 역사 강의: 세계체제 분석으로 본 자본주의의 기원과 미래』. 그린비.
- 스미스, C. P. 저. 오영환 역. 2001. 『두 문화』. 사이언스북스.
- 스탠딩, 가이 저. 김태로 역. 2014.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박종철출판사.
- 아리기, 조반니 저. 백승욱 역. 2014. 『장기 20세기: 화폐, 권력, 그리고 우리 시대의 기원』. 그린비.
- 옥스팜. 2019. 『불평등 보고서: 공익이나 개인의 부냐?』 <https://www.oxfam.or.kr/public-good-or-private-wealth/?rurl=%2Fresearch%2Fresearch-report%2F>(검색일: 2020. 12. 7).
- 윌러스틴, 이매뉴얼 저. 나종일·백영경 역. 1993.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창작과비평사.
- _____ 저. 성백용 역. 1994.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19세기 패러다임의 한계』. 창작과비평사.
- _____ 저. 백영경 역. 1999. 『유토피스틱스』. 창비.
- _____ 저. 정연복 역. 2001. “의도하지 않은 결과: 냉전시대 지역연구.” 노엄 촘스키 외. 『냉전과 대학』. 당대.
- _____ 저. 이광근 역. 2005. 『윌러스틴의 세계체제분석』. 당대.
- _____ 저. 권기봉 역. 2014. “지적 생애와 사회적 소명.” 『문명변환의 정치』.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_____ 외 저. 이수훈 역. 1996. 『사회과학의 개방』. 당대.

- 이수훈. 1992. “윌리슈타인의 근대세계체제 연구.” 한국비교사연구회 편저.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I』. 열음사.
- _____. 1993. 『세계체제론』. 나남.
- 임현진. 1994. “역사적 자본주의: 윌리슈타인.” 김진균·임현진·전상우. 『사회학의 명저 20』, 293-311. 새길.
- _____. 2011. 『세계화와 반 세계화: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묻는다』. 세창출판사.
- _____. 2020. “비교자본주의 시각에서 본 아시아의 발전국가: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9(2), 191-231.
- 크루그먼, 폴 저. 김광전 역. 1997. 『팝 인터내셔널리즘』. 한국경제신문.
- 피케티, 토마 저. 장경덕 역. 2014. 『21세기자본』. 글항아리.
-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 1990.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 열음사.
- _____. 1992.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I』. 열음사.
- Arrighi, Giovanni. 1995. “The Rise of East Asia and the Withering Away of the Interstate System,” paper prepared for the session on *Global Praxis and the Future of the World-System*, 90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August 19-23.
- Frank, Andre Gunder. 1994. “The World Economic System in Asia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Historian* 56(2), 259-276.
- _____. 1998.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and Barry K. Gills, eds. 1993. *The World System: Five Hundred Years or Five Thousan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ereffi, Gary and Miguel Korzeniewicz, eds. 1994.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Westport, CT and London: Praeger.
- McMichael, P. 1990. “Incorporating Comparison within a World-Historical Perspective: An Alternative Comparative Meth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386-88.
- Ragin, Charles. 1989.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stow, W. W. 1960.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pper, Jonathan, with Denise Hearn. 2018. *The Myth of Capitalism: Monopolies and the Death of Competition*. Hoboken, NJ: Wiley.

Abstract

21st Century Civilizational Crisis and the World-System Analysis: Immanuel Wallerstein's Comparative-Historical Perspective

Hyun-Chin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Jin-Ho Jang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cently continuous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COVID-19 raises the issue of the possible collapse of the so-called 'Anthropocene'. On the other hand, global capitalism has increasingly widened gaps between the small number of the haves and the majority of the have-nots leading to the crisis of democracy. In this time of the civilizational crisis, we pay attention to the works and insights of Immanuel Wallerstein, who is considered to have been the founder of the world-system analysis. First, in his scholarly works and discussions, he tried to construct an integrated discipline of 'historical social science' overcoming the divorce of history and other social-science disciplines. Second, he suggested the world-system as the whole to be the proper unit of analysis in research, instead of individual countries or societies. Third, his world-system analysis, which had been influenced by the dependency school, focused on the capitalist world-economy since the 16th century, the modern world-system, which is the historical system composed of the axial division of labor among core, periphery and semi-periphery, the inter-state system of multipolar political and cultural centers, and systemic adjustments as well as hegemonic shifts in the long-term cycles. Antisystemic movements such as the labor-socialist and nationalist movements have arisen since the French Revolution, but they have been unable to overcome the capitalist world-economy. He

was even doubtful of the inevitability of historical progress and instead emphasized people's choices to construct the alternatives in the current chaos. Wallerstein's discussions have some biases and mistakes. However, his discussions still seem to be very important for seeking alternatives in order to meet today's civilizational crisis.

Keywords | Anthropocene, Civilizational crisis, Wallerstein, World-system analysis, Historical Social Science, Antisystemic movements

